

# 〈제주풍토록〉의 텍스트 비평

---

김덕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한문학 전공

kds2691@aks.ac.kr

---

- I. 머리말
  - II. 〈제주풍토록〉의 저술
  - III. 〈제주풍토록〉의 후대 활용
  - IV. 〈제주풍토록〉의 텍스트 비평
  - V. 맺음말
-

## I. 머리말

---

충암은 1520년 8월 제주 적소에 위리안치되었고 이듬해 10월 30일 사사되었다. 14개월 남짓한 유배 기간 동안 충암이 제작한 시편은 『해도록(海島錄)』에 따로 수록되었으며 산문으로는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 <한라산기우제문(漢拏山祈雨祭文)> 등을 남겼다. 이 가운데 <제주풍토록>은 제주 지역의 풍토 및 문화 일반에 관한 최초의 풍토지(風土誌)로서 평가되거나 16세기 제주 민속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sup>1</sup> 따라서 그간 <제주풍토록>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상조는 충암의 <제주풍토록>과 이견(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를 개괄한 뒤, 찬자의 처지와 시대에 따라 주목하여 기술하는 측면이 상이함을 밝혔다.<sup>2</sup> 이종묵은 충암이 유배지의 풍물을 기록하기 위해 풍토록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유배객이자 목민관으로서의 의지가 함께 구현된 것으로 평가했다.<sup>3</sup> 근자에는 충암의 향약(鄉約) 실천에 대한 의지와 <제주풍토록>의 저술을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논고가 보고되기도 했다.<sup>4</sup>

충암이 제주에서 지은 한시와 <제주풍토록>은 공히 익명성과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제주 유배 기간 동안 충암과 접촉하거나 소통했던 내륙의 인물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암의 시문에는 일부 제주 토착민과 제주목사 이운(李耘)을 제외하고는 그 대상의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 
- 1 양순필, 「충암의 <제주풍토록> 소고」, 『어문논집』 22호(1981).
  - 2 김상조, 「충암 김정 의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견 의 <제주풍토기> 비교 연구」, 『대동한문학회지』 13권(2000).
  - 3 이종묵, 「한국의 유배체험과 글쓰기 문화: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호(2005).
  - 4 김유리,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40호(2012).

기묘사림에 대한 훈구파의 감시와 압박 때문에 상대방의 흔적을 원천적으로 지워버린 것이다.<sup>5</sup> 또한 <제주풍토록>에 모호하거나 난해한 표현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은 구두점을 찍기도 어렵거니와 정확한 의미를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간찰에 쓴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며 저술 시기도 분명치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텍스트 검토와 문헌 조사를 통해 <제주풍토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간찰의 수신자와 작성 시기, 저술 시 활용 전적과 제주 자료의 수습 등에 대해 고구하겠다. 이어서 <제주풍토록>이 후대 전적에 활용되는 양상을 파악한 뒤, 텍스트 교감을 통해 현전 <제주풍토록>의 오류를 몇 가지 층위에서 기술하되, 후대 문인의 견해를 적극 참조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충암의 유배문학과 <제주풍토록>의 실상이 일정 부분 해명되기를 바라거니와 본고의 논지가 <제주풍토록> 정본(定本)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충암의 시문에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물은 제주 토착민으로서 文世傑, 高根孫, 方舜賢이고 관원으로서 濟州牧使 李耘이다. 방순현에 대해서는 判官의 처남이라는 모호한 정보밖에 없는데, 현직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바, 제주 토착민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듯하다. 한편 思齊 安處順(1492-1534)으로 추정되는 벗이 살벌한 정국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주까지 직접 찾아왔고, 李允蕃(1460-1539)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위리안치 공간을 방문하여 충암과 더불어 聯句詩까지 제작했으며, 승려 月澗을 매개로 하여 짙막한 시편을 통해 내륙의 지인과 속내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충암집』 소재 해당 작품들에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실명을 교묘하게 감추거나 변형시켰다. 자칫 훈구파의 감시망에 포착된다면 역적의 동당이란 낙인표가 찍힌 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문까지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덕수, 「제주 유배객 충암의 교유와 감춰진 이름들」, 『인문논총』 제76권 제1호(2019).

## II. <제주풍토록>의 저술

### 1. 간찰에 적은 제주 풍토 기록

<제주풍토록><sup>6</sup>은 편지에 제주 풍토를 기록한 것으로 충암이 외질(外僞)에게 답장 형식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풍토록’이란 제목은 1552년 『충암집』 초간본을 간행하기 이전에 본 자료를 수습하거나 교정한 인물이 수록 내용을 감안하여 임의로 붙였을 것이다. 충암은 “이 고을 풍토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서 사사건건이 색다르니 걸핏하면 놀랄 만하고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sup>7</sup>라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제주의 독특한 풍토를 일일이 기술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서 기후, 주거, 민간신앙, 언어, 생활풍속, 원주민 기질, 자연과 지세, 한라산, 우물과 샘, 토산물, 명기류(皿器類), 소, 소금, 표고버섯과 오미자, 진귀한 나무와 특산물 등을 차례대로 소개한 뒤, 자신이 위리안치된 거처의 위치와 구조, 주변 풍광과 형세, 자신의 일상 등을 묘사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특히 민간신앙 부분에서는 미신 횡행과 뱀 숭배 풍조를 상술했고, 토산물의 경우는 들짐승, 날짐승, 산나물, 바다나물, 민물고기, 바닷물고기로 구분하여 적었으며, 제주 특산물로서 오미자와 각종 진귀한 나무 등을 세세히 기록했다.

편지 수신자가 외질이라는 기록은 훗날 제작된 <충암선생연보>에 처음 보이는데 그 출전이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裨官雜記)』로 적혀 있다.<sup>8</sup> 그러나 현전하는 『패관잡기』에는 해당 기록이 실려 있지 않다. 권별(權輿,

6 이하 <제주풍토록>을 지칭할 때는 <풍토록>이라 약칭하겠고, <제주풍토록>을 주석에 인용할 경우에는 출전을 생략하겠다.

7 “此邑風土，別是一區，事事殊異，動可吁駭，一無可觀。”

8 “按魚叔權『裨官雜記』曰，“先生答其外僞書，備錄濟州風土，其絃物產處，似相如<子虛賦>而光焰則加焉。又文字悲壯，實近世之所未有也。”

1589-1671)의 『해동잡록(海東雜錄)』에도 ‘수언(粹言)’이라는 출전과 함께 <풍토록>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외질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sup>9</sup> 『해동잡록』에서 언급한 ‘수언’은 허봉(許篈, 1551-1588)의 『하곡수언(荷谷粹言)』<sup>10</sup>을 지칭한다. 허봉의 『해동야언(海東野言)』에 “충암이 그 외질에게 답장한 글에 제주 풍토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 물산(物産)을 서술한 곳이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와 같으면서도 광채가 더하였고 또 문장이 비장(悲壯)하여 실로 근세에 없는 작품이다. …… 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책을 덮고 눈물을 흘렸다. 아! 슬프도다.【패관잡기】”라 했다.<sup>11</sup> 『하곡수언』은 『해동야언』을 지칭하거나<sup>12</sup> 『필원잡기』에는 <풍토록>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바, 허봉이 ‘외질’에 관해 처음 기술했을 가능성을 우선 상정할 수 있고, 현전하지 않는 『패관잡기』의 초기 본(本)에 외질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13</sup> 여하튼 외질에 관한 모호한 언급과 <풍토록>을 사마상여의 <자허부>에 비견하는 내용은 후대 전적에 관성적으로 인용되었다.<sup>14</sup>

- 
- 9 『海東雜錄』, “沖庵謫濟州, 錄風土, 敘物產處, 似相如子虛賦, 而光燄則加焉, 其爲文字悲壯.【粹言】” 이 책에서도 예외 없이 <풍토록> 문장의 비장한 풍격과 司馬相如의 <子虛賦>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 10 문헌에 따라 서명이 『荷谷粹語』로 된 곳도 있다.
- 11 『海東野言』[三], 中宗上. “沖庵答其外姪書, 備錄濟州風土, 其敘物產處, 似相如子虛賦, 而光燄則加焉, 又文字悲壯, 實近世之所未有也. …… 余每讀至此, 輒掩卷墮淚. 嗚呼痛哉!【出稗官雜記】” 이 책에서는 <풍토록>의 풍격과 司馬相如의 <子虛賦>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개인적 소회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 12 許篈의 연보에 의하면 그의 저술은 『朝天錄』, 『北邊記事』, 『荷谷粹語』, 『儀禮刪註』, 『夷山雜述』, 『讀易管見』 등이다. ‘荷谷粹語’, 혹은 ‘荷谷粹言’은 허봉 사후의 서명으로서 『海東野言』을 가리킨다.
- 13 필자의 추정으로는 <충암선생연보>를 작성할 때 허봉의 『해동야언』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 출전을 ‘해동야언’으로 쓰지 않고 『해동야언』에 적힌 ‘패관잡기’로 쓴 듯하다.
- 14 李廷馨(1549-1607), 『知退堂集』 권12, 「黃兎記事」, <文正公 沖庵先生 金淨>【八賢】. “公答其外姪書, 備錄濟州風土, 其敘物產處, 似相如子虛賦, 而光燄則加焉, 又文字悲壯,

충암은 <풍토록>에서 편지 수신인을 '그대[君]'로 지칭하고 있는데 도합 6번 등장한다. 해당 기사는 다음과 같다.

- ① 힘으로 약한 자를 제압하고, 폭력으로 어진 자를 위협하는 것이 그대가 편지에서 말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네(以強制弱, 以暴劫仁, 不下君示).
- ② 그대가 말한 '뼈가 많고 살이 적어서 皆骨山의 풍모가 있다는 것'과 견주어 보았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네(其視君言'多骨少肉, 有皆骨之風者', 大相遠絕.).
- ③ 생각 같아서는 소량이라도 보내 그대에게 (오미자)를 알려주고 싶으나 아직 다 마르지 않았네(意欲雖少送去, 令君知之也, 時未畢乾也.).
- ④ 그대가 말한 '회나무를 심어 무성해졌다는 일'을 지금 읽어 보니, 내 흥취를 능히 일으켜, 내년 봄부터 감귤나무, 귤나무, 비자나무를 줄지어 심을 요량이네(今得君言, 栽檜老蒼之事, 能起吾趣, 自明春欲列栽柑·橘·樗爲意.).
- ⑤ 때때로 그(필자주: 金剛社 果園) 아래를 소요하는데 옥빛 잎과 금빛 열매가 청색과 황색으로 화사하거니와 그것을 쪼개면 향기가 물씬 풍기니, 바로 그대가 말한 "귤과 유자 숲에서 길게 노래하노라."이네(時得逍遙其下, 玉葉金實, 青黃橘爛, 劈之香噴, 君所謂"長歌橘柚林.").
- ⑥ 그리워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으니 그대가 말한 것처럼 조금도 즐거운 마음이 없다네(既無意中人可共, 如君所言, 略無心綜.).

---

實近世之所未有也."

위 인용문을 통해 상대방이 충암에게 띄웠던 편지의 내용을 일부 추정할 수 있다. 상대방은 ‘제주 원주민의 난폭한 기질’, ‘뼈가 많고 살이 적어 개골산의 풍모를 지닌 한라산’, ‘회나무를 심은 것이 무성해진 현 상황’, ‘굴과 유자 숲에서 시편을 읊조리는 충암의 모습’, ‘조금도 즐거운 마음이 없는 자신의 근황’ 등을 언급한 것이다. 아마도 상대방은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제주 풍토에 대해 세세히 적어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③에서 오미자를 상대방에게 보내 그 맛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충암은 본인이 원한다면 편지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육지로 보낼 수 있었다. <풍토록>에 보이는 ‘군’이 외질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충암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후대 전적의 인용도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주에 대해 제법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거나 ④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은 회나무를 심었다고 하였다. 외질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충암은 위리안치 거처 인근의 샘물이 발원하는 곳을 설명하면서 속리산의 복천동(福泉洞)과 비슷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15</sup> 상대방은 속리산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일 터이다. 일단은 수신자가 외질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풍토록>을 찬술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아래 인용문은 제주 오미자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토산물은 香薷【속명 藜古】이 가장 많네. 그리고 五味子도 많은데 열매가 새까맣고 크기가 잘 익은 산포도와 비슷하여 구분할 수 없으며 맛도 매우 달지. 『본초강목』을 상고하건대 조선에서 나는 것이 좋거니와 단맛이 나는 것이 上品이라고 하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은 열매가 자줏빛

15 “又吾居近泉發源，城南果園之東隅，源發即大【可如福泉洞水】，流出東城底，以資吾汲用【汲處僅四十步許】，冷冽如冰。”

이고 맛이 적고 매우 시큼하지. 그런데도 『본초강목』에서 증시를 받았으니 이곳에서 나는 것이 천하의 으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안상에 사용했을 뿐이지. 내가 처음으로 말려보니 유난히 촉촉하고 윤기가 흘렀네. 금년에는 邑宰와 내가 많이 가져다 건조시켰지. 생각 같아서는 소량이라도 보내 그대에게 알려주고 싶으나 아직 다 마르지 않았네.<sup>16</sup>

토산물로서 향심(香薷)과 오미자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주 오미자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오미자라고 극찬하면서 자신이 처음 건조한 사실을 언급한 뒤, 금년에도 읍재(邑宰)와 자신이 다량을 채취하여 건조시켰으나 아직 다 마르지 않아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 충암이 제주 적소에 도착한 것은 1520년 8월 21일이고, 사사된 것은 이듬해 10월 30일이다. 그렇다면 충암이 오미자를 처음 말린 것은 1520년이고, 제주목사 이운(李耘)과 함께 오미자를 대량으로 건조한 것은 1521년이다.<sup>17</sup> 오미자 수확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사되기 직전인 1521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풍토록>을 지은 것이다.<sup>18</sup> 이밖에 <풍토록>을 찬술하며 『본초강목』

16 “惟土產，香薷【俗名藜古】最多，而五味子亦多，而實深黑而大如濃熟山葡萄，不可辨，味又濃甘。考『本草』，產朝鮮者良，又云味甘者爲上。吾知我國產者，實紫少味多酸，猶見重於本草。意此土產者，必高於天下無疑矣。前此人皆不知，但充杯盤之用。吾始乾之，滋潤異常。今年則邑宰及吾皆多取作乾矣。意欲雖少送去，令君知之也，時未畢乾也。” 원문의 ‘薷’은 ‘藜’의 오자다.

17 충암이 제주에서 찬술한 시문 가운데 제주 지방관과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이 기사가 유일하다.

18 1521년 가을, 승려 月澗이 제주 적소까지 직접 방문하여 申命仁 한시를 보여주자, 충암은 월간과 신명인에게 각각 시편을 써 주었다. 충암은 이즈음에 <풍토록>을 지은 뒤, 월간 혹은 다른 인편을 통해 ‘君’이라 칭하는 상대에게 보냈을 것이다. 『충암집』 권3, 「海島錄」, 〈題僧軸〉【僧名月侃，自京山渡海索詩云】: 『己卯錄補遺』 卷下, 〈申命仁傳〉. ‘君’이 申命仁일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신명인의 遺文이 워낙 영성한 탓에 그의 『龜峰先生集』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을 활용한 점도 주목을 요한다. 절해고도에 유배되었으므로 건강관리와 약 처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본초학 서적을 직접 소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암은 오미자를 섭취했을 뿐만 아니라 솔잎도 어렵게 구하여 복용했는데<sup>19</sup> 『본초강목』에 의하면 솔잎은 풍토병을 다스리는 약재다.<sup>20</sup>

## 2. 관련 자료의 수습과 활용

충암은 <풍토록>을 저술하며 『본초강목』이라는 전적을 활용했다. 이밖에 『동국여지승람』 기록도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암은 제주의 독특한 열매와 수목을 설명하고 나서 진귀한 토산품을 소개했는데 그 이름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橘, ② 柚, ③ 梔子, ④ 榧子, ⑤ 無患子, ⑥ 山柚子, ⑦ 二年木, ⑧ 無灰木, ⑨ 鸚鵡螺, ⑩ 椰子, ⑪ 加時栗, ⑫ 赤栗, ⑬ 良馬 등<sup>21</sup>

특이한 점은 13종의 물산 가운데 '산유자(山柚子)'를 제외한 나머지 12종이 『동국여지승람』에서 제주 토산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1종의 식물명 사이에 앵무소라(鸚鵡螺)와 좋은 말(良馬)이 끼어 있는 점도 이채롭다. 다음은 꿀과 유자의 품종을 나열한 부분이다.

『충암집』의 '月侃'은 '月澗'의 오자다.

19 “海松子全無，松木亦甚稀，吾服松葉，僅取于遠地也。”

20 『本草綱目』 권34, 木之一, <松>. “松葉，別名松毛，氣味苦溫無毒。主治，風濕瘡，生毛髮，安五臟，守中，不饑延年。”

21 “此地可珍者，橘·柚·梔子·榧子·無患子·山柚子·二年木·無灰木·鸚鵡螺·椰子【已上三物隨海，螺·椰子，土人不知，名行實，陸上岸乃得，  地人作行瓢酒器，謂之杏核】·加時栗·赤栗【二物，乃橡實之類，但不苦，可作粥。】·良馬等也。”

- ① 金橘, ② 乳柑, ③ 洞庭橘, ④ 青橘, ⑤ 山橘, ⑥ 柑子, ⑦ 柚子, ⑧ 唐柚子,  
⑨ 倭橘<sup>22</sup>

9가지 귤과 유자의 품종을 소개했는데 이 가운데 『동국여지승람』에 실리지 않은 것은 ‘당유자(唐柚子)’가 유일하다. 두 인용문을 통해 품목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소팅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인용문에 제시된 22종의 품목 중에 20종이 『동국여지승람』에 보인다는 것은 『동국여지승람』을 참조하여 해당 기사의 기본 골격을 만들되<sup>23</sup> ‘산유자’와 ‘당유자’ 2종을 추가한 뒤, 자신이 견문한 사항이나 체험한 내용을 본문이나 주석의 형태로 첨가했음을 추정케 한다. 예컨대 청귤(靑橘)의 주석은 아래와 같다.

이 품종은 가을과 겨울에는 매우 시어서 먹을 수 없으나, 겨울을 지나 2, 3월이 되면 신맛과 단맛이 적당해진다. 5, 6월에는 노랗게 익은 옛 열매와 파랗게 열린 새 열매가 한 가지에 함께 달리는데 참으로 기이하다. 이때가 되면 단맛이 마치 식초에 꿀을 섞은 듯하다. 7월에는 열매 속 씨가 모두 물로 변하는데 맛은 여전히 달다. 8, 9월에서 겨울이 되면 열매가 도로 파래지고 씨가 다시 생기고 맛이 매우 시큼해져서 새 열매와 다름없다. 시큼할 때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며 먹지 않는다.<sup>24</sup>

청귤의 맛과 생태 변화를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서술했는데 충암 본인의

22 “橘·柚有九種。有金橘·乳柑·洞庭橘·靑橘·山橘·柑子·柚子·唐柚子·倭橘。” 본 주석은 주석을 제외하고 원문만 제시한 것이다.

23 『동국여지승람』 권38, 全羅道, 濟州牧, ‘土産’ 조.

24 “此品, 秋冬則極酸不可食。經冬到二三月, 酸甜適中。五六月, 舊實爛黃, 新實靑嫩, 同在一枝, 實爲奇絕。至此時, 味甘如蜜和于醋。至七月, 則實中之核皆化爲水而味仍甘。至八月九月至冬, 實還靑, 核更成, 味極酸, 與新實無異。方其酸時, 人賤之而不食。”

체험과 제주 인물의 설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 내용은 추후에 이익(李瀾)의 『성호사설(星湖僿說)』과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약간의 가감을 거쳐 수렴되었다.<sup>25</sup> 충암은 귤과 유자의 품종을 소개한 뒤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이 아홉 가지 품종은 가지와 잎이 대동소이하다. 오직 柚子는 가시가 가장 많은데 열매 껍질은 가장 향기롭다. 柑子는 잎이 가장 두꺼운데 열매 껍질은 가장 향기가 적다. 생각건대 이 두 가지 품종이 가장 下品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품종은 가시가 많지 않고【柑子도 그렇다.】 잎이 성글고 좁으며, 열매 껍질의 향기가 그다지 심하지 않으나, 씹어보면 향기가 매우 강렬하여【唐柚子和 倭橘의 껍질도 그렇다.】 먹기 어려우나 약효는 가장 좋다. 생각건대 품종이 高品이기 때문이다. 나무 높이는 한 길 남짓에 불과하지만 큰 것은 기둥과 같다. 뭉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하고, 줄기와 가지도 크고 많다. 심지어 수십 개의 줄기와 가지가 엮힌 것은 꾸불꾸불 휘감겨 있는 용과 같아서, 기이하고 예스럽고 굳세고 수척하다. 껍질 무늬의 경우, 오래된 나무는 황색과 자색으로 이끼가 끼거나 벗겨졌고, 어린 나무는 푸른색이 어지러워 사랑스럽다. 그 잎은 사시사철 늘 푸르다. 이곳에는 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 나무숲은 진실로 아름답다.<sup>26</sup>

아홉 가지의 수종(樹種)을 대상으로 가시의 다소, 열매 껍질의 두께와

25 『성호사설』 권4, 萬物門, 〈耽羅果品〉; 『오주연문장전산고』 萬物篇○草木類, 果種, 〈耽羅異果辨證說〉.

26 “凡此九種, 枝葉大同小異. 惟柚最多刺, 而實皮最香. 惟柑葉最厚而實皮最香薄. 意者此二品最下故也. 餘品, 刺不甚【柑亦然】, 而葉疏狹, 實皮嗅不甚香, 而嚼甚香烈且辛辣【唐柚·倭橘皮亦然】, 食不堪而藥最效. 意者品高故也. 樹高不過丈餘, 而大者或如柱. 喜叢生, 幹枝亦大多, 至數十相糾, 如龍盤礪磊砢, 奇古勁瘦. 皮理, 古者黃紫苔剝, 新者青駁可愛. 其葉四時長綠. 此地無一可觀, 維此樹林真奇勝也.”

향기, 잎과 가지의 모양, 수목의 생태, 줄기와 그 껍질의 형상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 예외적이거나 특징적인 경우는 주석을 활용하여 기술했다. 열매의 식감이나 약효를 언급한 부분은 충암의 실제 체험과 관심을 반영하거나와 용처럼 뒤엉킨 줄기의 기이한 형세를 묘사할 때는 충암의 남다른 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수종별 품등(品等), 굴 숲과 유자 숲의 승경을 적을 때에는 개인적 판단과 견해를 다수 개진했다.

그렇다면 충암에게 제주 풍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인물은 누구일까? <풍토록>에 의하면 충암은 제주목사 이운과 함께 오미자를 구해 건조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뿐만 아니라 제주 오미자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것이다. 제주목사는 오미자 이외에도 제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충암과 더불어 주고받았을 터이다. 하지만 이운이 목사로 부임한 시기는 충암이 제주 적소에 도착한 날보다 한 달 이상 늦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식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sup>27</sup>

『충암집』 권4에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이 실려 있다. 1521년 1월 16일에 찬술한 것으로 수정사 중수를 권려하는 권선문이다. 서두에 이러한 내용이 보인다.

무릇 구하는 것이 있으면 신에게 빌며 푸닥거리하는데, 질병과 액운, 득실과 화복을 오롯이 神에서 맡긴다. 이에 살랭이, 쥐, 뱀 귀신을 신으로 섬기니, 숲속 사당들이 서로 마주보고 징소리와 북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다. 명절이나 삭망, 칠칠의 제사가 있는데 제사 때마다 반드시 희생을 죽이고 술과 음식을 낭비하며 잔치를 벌인다.<sup>28</sup>

27 <觀風案>에 따르면 李韞(1469-1535)은 1520년 9월에 부임했는데 동년 8월에 윤달이 들었으므로 충암이 적소에 도착한 8월 16일과 한 달 이상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증보탐라지편찬위원회 편, 『增補耽羅誌』(제주문화원, 2004), <觀風案>.

28 『冲庵集』 권4, 文,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正德辛巳正月既望. 洪裕孫, 先亦有此文.】.

살팽이, 쥐, 뱀을 숭상하여 푸닥거리가 성행하므로 도처에 사당이 즐비하고 명일(名日), 삭(朔), 망(望), 칠칠(七七)의 제사가 치러진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희생을 죽이고 술과 음식을 낭비한다. 위 인용문은 <풍토록>에서 제주의 민간신앙과 뱀 숭배 풍토를 기술한 부분과 유사하다.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지극히 숭상하여 男巫가 매우 많은데 재앙으로 사람을 협박하여 흠처럼 재물을 모은다. 명절이나 삭망, 칠칠일【초7일, 17일, 27일】에는 반드시 희생을 죽여 함부로 제사지낸다. 사당은 거의 300여 곳에 이르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고 요망한 말이 자주 일어난다. 사람이 병에 걸려도 약 먹는 것을 매우 꺼리고 귀신이 성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풍속이 뱀을 몹시 꺼려 신으로 떠받든다. 그것을 보면 주문을 외며 술을 주고 감히 쫓거나 죽이지 않는다.<sup>29</sup>

두 글을 비교해보면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숭상하고 제사 때마다 희생을 죽이는 풍습, 뱀 따위를 신으로 모시는 풍토, 준비하게 서 있는 수많은 사당 등을 설명하는 것이 흡사하다. 더욱이 제사 시기를 ‘명일삭망칠칠(名日朔望七七)’로 기술한 부분은 두 글이 완전히 일치한다. <풍토록>에서는 ‘칠칠일’ 아래에 “초칠(初七)·십칠(十七)·이십칠(二十七)”이란 주석을 달았는데 이 주석이 없다면 <권선문>에 보이는 ‘칠칠’의 함의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의 일부 내용이 <풍토록>에 수렴된 셈이다.

“凡有所求祈禳，病厄·得喪·福禍，一聽於神，乃奉狸鼠蛇鬼以爲神，叢祠相望，鑼鼓相聞，有名日·朔·望·七七之祠。祠【一作祀】必殺牲宰，糜酒食以爲饗。”

29 “酷崇祠鬼，男巫甚多，嚇人災禍，取財如土。名日·朔·望七七日【初七·十七·二十七】，必殺牲爲淫祠，淫祠幾至三百餘所，歲增月加，妖訛屢騰。人疾病，甚畏服藥，謂爲鬼怒，至死不悟。俗甚忌蛇，奉以爲神，見卽呪酒，不敢驅殺。”

이 권선문은 불심이 신실했던 고근손(高根孫)이라는 자의 촉탁을 받고 찬술한 글이다. 고근손은 충암의 적소까지 찾아와 발원문 찬술을 간곡하게 부탁했다.<sup>30</sup> 추정컨대 고근손이 수정사 중수의 당위성을 위시하여 온갖 미신이 판치는 세태와 그 연원, 구체적인 사례와 불법의 효용 등을 설명했을 터이고, 충암은 고근손이 건넨 정보와 자신의 식견을 종합하여 본 권선문을 작성했을 것이다.<sup>31</sup> 그리고 나중에 <풍토록>을 지을 때 그 내용의 일부를 재활용한 것이다. 제주인의 설명이 없다면 외딴섬에 유리안치된 충암이 무슨 수로 제주 무속에 관한 세세한 정보를 획득했겠는가.

고근손 이외에 충암이 친밀하게 교류했던 문세걸(文世傑)과 방순현(方舜賢)도 제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문세걸은 충암이 제주에서 만난 인물 중에 가장 절친했던 호족이다. 제주에는 학식과 의취를 갖춘 자가 드물었으나 문세걸과는 허심탄회하게 흥금을 터놓았고 늘 바둑을 함께 두었다.<sup>32</sup> 문세걸이 요절한 뒤에는 제주판관 진세인(秦世仁)의 처남인 방순현과 가깝게 지냈다. <풍토록>에서 “어울리는 자는 원주민 아니면

30 『冲庵集』 권4, 文,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 “高君根孫, 信佛而心乎善者也. 念元朝舊物巋然獨存者, 唯都近川之水精寺, 風掀雨淋, 葺桷侈剝, 惜其且遂圯而無餘存也, 慨然奮思, 與同志者, 仍其舊而重營之, 庶幾其不墜, 乃來求文於余甚勤. 於是乎撰其答客之語, 書以畀之.”

31 高根孫은 16세기 제주 불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 水精寺 중수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16세기 중반 이후에 거듭 改刊되고 重刊되는 『大慧普覺禪師書』의 저본 글씨도 직접 썼다. 1568년(선조 1) 전라도 長興의 天冠寺에서 간행한 『大慧普覺禪師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貴3747-253)와 1647년(인조 25) 경상도 靑松의 普賢寺에서 간행한 『大慧普覺禪師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1840-3) 등을 살펴보면 책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刊記가 적혀 있다. “嘉靖十年辛卯之春, 有一道人請求曰, ‘大慧說文, 雖有舊本, 字細. 故老德對目前欲觀其, 而未詳哉! 畫中則, 以謂視之, 而書于濟州上將在家居士高根孫.’”

32 『冲庵集』 권3, 「海島錄」, <悼文士豪>【士豪名世傑, 耽羅之傑也. 年三十四沒, 吾之寄哀, 情見乎詩】에 “殘棊散不收, 何人來整局. 豈無壺樽會, 要非心所屬. 絕國禦魑魅, 逢人多趨趨. 淳質剗崖畦, 披展襟懷足. 君今爲異物, 何地開心曲.”이라는 시구가 보인다.

방생(方生)이니, 어찌 내 흥취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 말한 뒤, “방생은 이름이 순현(舜賢)으로 관관의 처남이네. 유학을 배워서 우리들에 관해 제법 풍문을 들었고, 마음가짐이 넉넉하여 그런대로 대화할 만한데, 세속에 물들고 아정함이 부족하며 강호에 조예가 없네. 그러나 바다 밖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어찌 커다란 다행이 아니겠는가!”라는 주석을 달았다.<sup>33</sup> “어울리는 자는 원주민 아니면 방생이다”라는 언급으로 추론하건대 고근손, 문세걸, 방순현 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익명의 제주 백성들도 충암에게 제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 Ⅲ. <제주풍토록>의 후대 활용

충암이 사사되고 90여 년이 지난 1614년, 동계(桐溪) 정온(鄭蘊)이 제주 대정현(大靜縣)에 위리안치된다. 정온은 기문(記文)을 지어 자기 거처를 묘사하면서 “둘째 칸은 비워 두어 출입하는 통로로 삼고, 판자로 문을 만들어 여닫게 했다. 절구를 그 곁에 두었는데 이곳 풍습에 절구는 있어도 방아를 찧는 일이 없으므로 부득이 풍습대로 따랐다.”라고 했다.<sup>34</sup> 충암은 <풍토록>에서 “등에 짊어지되 머리에 이지 않으며, 절구는 있어도 방아를 찧는 일이 없으며, 옷을 두드리되 다듬잇돌이 없으며 【손으로 두드린다.】, 풀무 질하되 밟지 않는다.【손으로 풀무질한다.】”라 적으며 제주인의 생활 풍속을 개괄했다. 절구와 방아에 대한 정온의 기술이 충암의 <풍토록> 기사를

33 “且所偕非土人，卽方生【生名舜賢，判官之妻媿。學儒，於吾輩事，頗聞風。持意足多，稍可談話，而染俗乏雅，於江湖無入處。然海外遇斯人，豈非幸甚歟！】，豈足發吾興！”

34 『桐溪集』 권2, 記, <大靜縣東門內圍籬記>【萬曆甲寅秋八月日】. “第二間空之，爲出入之路，以板戶開閉之。置臼其側，土俗有臼無春，不得不循俗也。”

전용한 것임은 채언의 여지가 없다.<sup>35</sup> 이밖에도 충암의 글을 인용한 흔적이 정온의 기문 도처에서 발견된다.<sup>36</sup>

한편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답장의 형태로 제주 풍토를 기술하던 방식도 후세의 문인들이 모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1622년 정온은 <답임낙옹문(答林樂翁問)>이란 답장 형식의 글을 찬술했다. 낙옹(樂翁) 임진부(林眞愬)가 서간을 통해 유배지의 산천과 풍속에 대해 질문하자, 정온이 대정현의 주변 풍광과 풍속, 유배생활의 실상 등을 적어 보낸 것이다.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鼓鼓子(필자주: 정온)가 바다에 들어온 지 9년이 되어 도깨비와 무리가 되니, 염라세계와의 거리가 지척도 되지 않는다. 德恩 林樂翁이 바다로 서찰을 보내 궁핍한 생활상을 묻고 또 말하기를, “형은 유배지의 산천이 이리하고 풍속이 이리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또 이리하다는 것을 적어 별도로 한 폭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벽에 걸어 두고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을 붙이도록 해 달라.”고 하니, 이는 서로 생각하여 잊지 못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리라. 고고자가 그 뜻에 감동하여 다 닳은 붓을 억지로 잡고서 답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섬 안의 산천과 풍토는 金冲菴 선생이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다 기록하여

35 “負而不戴，有日無春，擣衣無砧【以手敲打】，冶鑪無踏【以手鼓囊】。”

36 동계가 찬술한 “淫雨連鬱不開，盲風發作無時，瘴霧昏塞，咫尺不辨人物。”과 “冬或不寒，夏或不暖，氣候回互，寒暑逆置。故衣食難節，疾病易生。至如蛇虺·蜈蚣·蠅蛆等蠢蠕之物，皆經冬不死。”가 <풍토록>의 “氣候冬或溫夏或涼，變錯無恒。風氣似暄而着人甚尖利。人衣食難節，故易於生疾。加以雲霧恒陰翳，少開霽，盲風怪雨發作無時，蒸濕沸鬱。又地多蟲類，蠅蚊尤甚，與凡蜈蚣·蠅蛆等諸雜蠢蠕之物，皆經冬不死，甚爲難堪。”을 변용한 것임은 일견에 알 수 있다. <大靜縣東門內圍籬記>의 후반부는 정온이 질문하면 제주 원주민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제주 풍토를 기술했는데, 원주민의 답변 중에 <풍토록>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한 곳이 많다. 제주 백성이 <풍토록>을 암송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다 풍성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정온이 가상의 인물을 설정한 뒤, <풍토록> 기사와 본인이 견문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조직한 것이다.



빠뜨린 것이 없으며, 大靜의 형세는 내가 일찍이 <圍籬記>에서 대략 언급하여  
고향에 있는 친우들에게 부쳤는데, 어찌 낙옹만이 보지 못했던 말인가! 지금  
감히 다시 철회하지 않고 단지 유배지에서 견문한 것과 일상사를 낙옹을  
위해 진술하겠다.<sup>37</sup>

임진부는 평소 정온을 존경하는 마음을 되뇌고자 제주의 자연과 풍속,  
유배객의 삶에 대해 물은 것이고, 정온은 이것을 자신을 향한 그리움의  
표출로 이해하고 있다. 충암이 <풍토록>에서 제주의 산천과 풍토를 남김없  
이 기록했다는 언급을 통해 <풍토록>이 당대 문인들에게 폭넓게 읽혔음을  
추정할 수 있거니와 정온도 내륙에 있는 친우에게 읽힐 요량으로 이미  
<위리기>를 지어 보낸 바 있다. 그렇다면 충암이 제주 풍토 기록의 전통을  
처음 수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진부가 정온에게 풍토록 찬술을  
부탁한 것은 충암의 외질이 충암에게 풍토록 저술을 부탁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온은 <풍토록>을 염두에 둔 채 <풍토록>과  
<위리기>에 실리지 않은 내용을 따로 기술한 것이다.

팔오현(八吾軒) 김성구(金聲久, 1641-1707)는 1679년(숙종 5) 서인을 논핵  
하다가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좌천되었다. 그는 제주에서 <남천록(南遷  
錄)>을 지었는데 충암의 <풍토록>과 <도근천수정사중수권문>을 상당부분  
인용했다.<sup>38</sup> 물론 출전을 다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충암의 기록을

37 『桐溪集』 권2, 書, <答林樂翁問>【壬戌】. “鼓鼓子入海九年, 魑魅與爲徒, 距閻羅界不咫尺. 德恩林樂翁, 以書擲之海, 問窮愁, 且曰, ‘願吾兄寫出謫中之山川如是也, 風俗如是也, 起居眠食又如是也, 別成一幅, 使我掛諸壁, 以寓瞻泝之懷云云.’ 蓋出於相思不忘之意也. 鼓鼓子感其意, 強步秃尖奴以答之曰, ‘島中之山川·風土, 金沖庵先生謫居濟州時, 盡錄無遺憾矣. 大靜形勢, 余曾於<圍籬記>亦略及之, 以寄夫故鄉親友, 豈樂翁偶未之見耶! 今不敢更贅陳言, 只以楮中所聞見與日用事爲者, 爲樂翁陳之.”

38 예컨대 “又冲庵<水精寺重修記>云, ‘氓俗鄙而癡野, 機而好殺. 凡有所祈禳病厄, 得喪禍福, 一聽於神. 疾病, 甚畏服藥, 謂鬼怒, 至死不悟. 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則呪酒, 不敢驅

빠대로 삼아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하여 중간 중간에 삽입하기도 했다. 김성구가 ‘지지(地誌)’를 인용했다고 명시한 기사도 실제로는 <풍토록>을 거의 그대로 전사한 부분이 많다.<sup>39</sup> <풍토록>에는 불완전한 표현과 오자로 추정되는 글자, 연자(衍字)나 연문(衍文)으로 보이는 곳이 도처에 산견하는데, 김성구가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인용한 바, <풍토록>을 교감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준다.<sup>40</sup> 이밖에 내륙의 지인에게 편지를 띄울 때도 예측할 수 없는 제주 날씨를 묘사하면서 <풍토록> 기사를 은연 중에 구사하기도 했다.<sup>41</sup>

1706년(숙종 32) 제주어사(濟州御史) 이해조(李海朝, 1660-1711)는 오언고시로 제주의 산천과 풍속을 기록하면서 “단산에서 죽실(竹實)을 먹고, 상수에서 향초(香草)를 캐었지(丹山餐竹實, 湘水采蘭莖).”란 시구를 지었다. 그리고 시구 아래에 “충암의 <풍토록>에 ‘야자(椰子)는 바다에서 떠내려 왔는데 제주 사람들이 그것을 죽실이라 부른다.’라 했다.”라는 주석을 붙였다.<sup>42</sup> 야자에 관한 <풍토록> 기사가 작시(作詩)의 소재로 활용된 것이다. 이 주석은

殺.”이다. “鄙而癡野, 機而好殺”은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의 “朴鄙而癡, 野而好教”를 변형한 것이고, “疾病, 甚畏服藥” 이하는 <풍토록>을 인용한 것이다. 『八吾軒集』 권5, <南遷錄上>.

39 예컨대 “土產尤絶少, 但獐·鹿·猪最多, 猫亦多. 此外狐·兔·虎·熊等皆無.”; “禽有雉·鷓·烏·雀, 而無鵲·鶴等鳥.”; “山菜則蕨·蕨最多. 香蔬·朮·人蔘·當歸·桔梗等皆無.”; “海菜則但藿·牛毛·青角, 此外海衣·甘苔·黃角等皆無.”; “陸魚則銀口種而已.”; “海族有生鰻·烏賊魚·玉頭魚·古刀等數種. 此外絡蹄·牡蠣·蛤·蟹·青魚·石首等諸賤種皆無.”는 모두 <풍토록> 기사다.

40 예컨대 <풍토록>에 실린 “號品官人外, 無溫埃.”의 ‘號’字를 문맥을 고려하여 삭제했고, ‘蠢蠕’의 하루살이 ‘류(蠕)’字를 꿈틀거릴 ‘연(蠕)’字로 수정했다.

41 1680년 權濬에게 띄운 <答權山長>(『八吾軒集』 권4)에서 “自五月以後, 得見三光者, 僅兩三日. 以此衣食難節, 疾病易生, 此爲可憫.”이라 말했는데 “衣食難節, 疾病易生”은 <풍토록> 기사다.

42 『鳴巖集』 권3, 詩, <賦六十韻, 記島中山川風俗> 中. “冲菴風土錄, 椰子自海中浮來, 州人謂之竹實.”

〈풍토록〉의 텍스트 비정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필자의 우견으로 판단하건대 〈풍토록〉에 실린 해당 기사는 〈풍토록〉에서 가장 난해하고 모호한 문장 중의 하나다. 통사 구조가 불완전하고 텍스트 자체에 오류가 많기 때문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無灰木鸚鵡螺椰子【已上三物隨海螺椰子土人不知名行實陸上岸乃得▣▣地人作行瓢酒器謂之杏核】

두 글자가 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자나 착간으로 여겨지는 표현이 보이는바, 구두점을 찍거나 해석하는 데 자못 난감하다. 판독의 어려움은 이해조 역시 느꼈을 터이다. 이해조는 이 문장을 궁구한 끝에 “야자는 바다에서 떠내려 왔는데 제주 사람들이 그것을 ‘죽실’이라 부른다.”는 주석을 작성했다. 이해조 주석을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이 구두점을 찍고 번역해 볼 수 있다.

무회목, 앵무라, 야자 【이상의 세 가지 물건은 바다를 따라왔다. 야자는 제주 사람이 알지 못하여 ‘죽실’이라 명명했다. 육상의 언덕에서 그것을 얻는데 이곳 사람들은 휴대용 술그릇으로 만들어 ‘杏核’이라 부른다.】

無灰木·鸚鵡螺·椰子【已上三物隨海·螺椰子, 土人不知, 名行實. 陸上岸乃得《之, 此》地人作行瓢酒器, 謂之杏核.】

‘수해(隨海)’는 ‘바다를 따라왔다’로 풀고, ‘나야자(螺椰子)’의 ‘나(螺)’는 연자나 착간으로 볼 수 있다. ‘행실(行實)’은 ‘숙실(竹實)’의 오류로서 초서로 씌어진 ‘죽실’을 오독한 것이다.<sup>43</sup> ‘행(行)’과 ‘죽(竹)’의 초서체가 유사하기

43 『景宗實錄』 3년(1723) 7월 4일조에도 “제주에서 竹實이 났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때문이다. 『충암집』 초간본과 중간본에는 모두 ‘행실’로 되어 있다. ‘사인(士人)’은 고전번역원 입력본의 오류로서 문집에는 ‘토인(土人)’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표현은 해석상으로 여전히 석연치 않다. 여하튼 <풍토록>이 훗날 작시의 소재로 활용되었으며 후대 주석을 통해 <풍토록>의 오류를 일부 비정할 수 있는 사례다. 이해조는 한라산에 올라 <등한라산(登漢拏山)>을 읊조리기도 했는데 시서(詩序)에서 한라산의 위용을 설명하며 <풍토록>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기도 했다.<sup>44</sup>

우암(寓庵) 남구명(南九明, 1661-1719)은 1712년(숙종 38) 제주통판(濟州通判)에 부임하더니 “정장(亭長)은 애초에 너에게 구하지 않거늘, 그대를 보니 남에게 구하는 게 있구나(亭長初非從汝索, 看君知是有求人).”<sup>45</sup>라 읊조리면서 뇌물 수수가 성행하는 풍토를 꼬집었다.<sup>46</sup> 그리고 이 시구 아래에 “『풍속지(風俗志)』에서 ‘자질구레하고 대단치 않은 일에도 모두 뇌물을 주면서 엮치와 절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 했다.”<sup>47</sup>라는 주석을 달았다. 이 주석은 <풍토록>의 “지인(知印)과 공생(貢生)【모두 평민 등의 향리다.】은 날마다 부당한 이익을 일삼는다. 자질구레하고 대단치 않은 일에도 모두 뇌물을 주면서 엮치와 절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sup>48</sup>에 연원을 두고 있다.<sup>49</sup>

44 『鳴巖集』 권3, 詩, <登漢拏山> 詩序 中, “金沖菴云, 登漢拏絕頂, 四顧滄溟, 可盪奇胸, 太白所謂雲垂大鵬鷗, 波動巨鯨沒者, 唯此可以當之.” 충암이 한라산의 위용을 묘사한 이 문장은 후대 문인들이 누차 인용한 바 있다. 심지어 趙遠期(1630-1680)는 <壯遊錄序>(『九峯集』 권6)에서 출전을 따로 표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착안한 표현인 양 충암의 글을 작문에 활용하기도 했다. “余之素志, 將欲縱一葦於滄溟, 登漢拏絕頂, 俯觀南極老人星, 指點月出·無等於杳茫之中, 以盪奇骨, 歸踏萬二千峯, 遙望東溟, 以騁壯懷, 泛舟於三日浦, 縱目于鏡浦臺, 訪仙躅於叢石, 觀日出於洛山, 以益奇思.”

45 『寓庵集』 권1, 詩, <補毛羅歌>·其一 친구와 절구.

46 남구명은 1713년 4월에 한라산을 등정하고 장편시 <壯遊>를 지었고, 동년 5월에 공무 수행 차 大靜에서 旌義를 일주한 뒤 <續壯遊>를 짓기도 했다. 이밖에 제주 풍토를 소개한 시편을 다수 지었다.

47 “風俗志. 毫縷細故皆有贈賂, 不知廉義爲何事.”

48 “持印·貢生【皆平民等鄉吏】, 日各以漁利爲事. 毫縷細故, 皆有贈賂, 不知廉義爲何事.”

남구명은 제주통판에서 체직된 후, 조정으로 돌아오다가 전라도 영암(靈巖)에 이르러 <6일 포시(晡時), 이진(梨津)에 정박하다><sup>50</sup>를 지은 바 있다. 그 함련과 경련은 이렇다.

犁懸後壁疑新制 뒷벽에 걸린 쟁기의 낫선 모양이 의아하고

① 【제주 쟁기의 규격은 자루가 한 길쯤이고 쇠보습이 2-3치이다.】<sup>51</sup>

鵲噪前林慣舊聲 앞 숲에서 우는 까치의 옛 소리가 익숙하네.

② 【온 섬에 까치가 없다.】<sup>52</sup>

汲女頂盆搖臂過 물 길는 여인은 머리에 동이를 인 채 팔을 흔들며 지나가고

③ 【섬 풍속에 물 길는 여인은 등에 짊어지되 머리에 이지 않는다.】<sup>53</sup>

田翁肩笠和雲耕 시골 노인은 어깨에 모자를 걸친 채 운무 속에서 밭을 가네.

④ 【온 섬에 농부가 쓰는 모자가 없다.】<sup>54</sup>

몇 해 만에 오른 물의 풍광은 제주와는 사뭇 다르다. 벽에 걸린 쟁기의 모양, 제주에서 들은 적이 없는 까치 울음, 물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 모자를 걸친 시골 노인. 모든 것이 제주에서 보지 못한 풍경이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물의 풍광을 섬세하게 묘사하되 대우(對偶)에 공력을 기울였다. 자수(字數)가 제한된 근체시에 세세한 정보까지 담을 수 없으므로 주석을 통해

‘持印’은 고전번역원 입력본 DB의 오류로서 초간본과 중간본에 공히 ‘知印’으로 되어 있다.

49 주석에 보이는 ‘風俗志’가 충암의 <풍토록>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제주 풍속을 기술한 별도의 전적일 가능성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풍토록>을 전제한 것은 분명하다.

50 『寓庵集』 권2, 詩, <六日晡時, 泊梨津>.

51 “【濟州犁制, 柄一尺許, 鐵二三寸.】”

52 “【一島無鵲.】”

53 “【島俗, 汲女負而不戴.】”

54 “【一島, 無農笠.】”

제주의 특색을 부여했는데, ②와 ③은 <풍토록>에 출전을 두고 있다.<sup>55</sup> 두 번째 시구에서 까치를 언급한 것은 물과 제주의 생태적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조정으로 향하던 자신이 포시(晡時)에 나무에 도착했기 때문에 <손수영전(孫守榮傳)>의 작조(鵲噪) 고사를 응용한 것이다.<sup>56</sup>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지방 풍토에 관한 그의 관심을 대변하듯이 <남북도풍토지(南北道風土誌)>, <관서지(關西誌)>, <탐라지(耽羅誌)> 등을 찬술했다. <탐라지>에는 <풍토록>을 수렴한 흔적이 다수 나타난다.

산에는 虎豹, 熊羆, 豺狼 등 사나운 짐승이 없고, 여우와 토끼가 없다. 새는 황새가 없고 까치가 없고 부엉이·올빼미도 없다. 산중에는 기이하고 괴상한 새가 보이며 공물로 바치는 새와 짐승, 사슴, 돼지, 해달이 있다(山無虎豹·熊羆·豺狼惡獸, 無狐·兔. 鳥無鸛無鵲, 無鴝鵒. 山中見奇禽怪鳥, 有貢鳥獸·麋鹿·豕·海獺).<sup>57</sup>

제주의 들짐승과 날짐승을 설명한 부분이다. 물명을 살펴보면 <풍토록>의 ‘호(虎)’를 ‘호표(虎豹)’로, ‘웅(熊)’을 ‘웅비(熊羆)’로, ‘장록(獐鹿)’을 ‘미록(麋鹿)’으로, ‘저(猪)’를 ‘시(豕)’로 글자만 바꾸어 표현했고<sup>58</sup> 이밖에 부엉이와 올빼미, 해달 등 몇 종을 추가했을 뿐이다. <탐라지>를 저술할 때 <풍토록>을 근간으로 하되 동일한 표현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일부 내용을 가감한 것이다.

55 “負而不戴, 有臼無春, 擣衣無砧【以手敲打】, 冶鑪無踏【以手鼓槩】.”; “汲必以木桶負行【凡卜物多女負行】, 取多汲也.”; “禽有雉烏鴝雀, 而無鸛鵒等.”

56 『宋史』 권462, <孫守榮傳>에 “一日, 庭鵲噪, 令占之, 曰, ‘來日晡時, 當有寶物至.’ 明日, 李全果以玉柱斧爲貢.”이 보인다. ‘玉柱斧’는 朝官이 조정에 출입할 때 사용하는 기물이다.

57 許穆, 『記言』 권48○續集, 四方[二], <耽羅誌>.

58 “獸但獐鹿猪最多. 獮【吾兒里】亦多, 而此外狐兔虎熊等皆無. 禽有雉烏鴝雀, 而無鸛鵒等.”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찬술하면서 <한라산변증설(漢挈山辨證說)>과 <탐라이과변증설(耽羅異果辨證說)>에서 <풍토록>을 다수 인용했다.<sup>59</sup> 특히 청굴(靑橋)을 설명하는 문단에서는 ‘탐라지(耽羅誌)’라는 서명을 출전으로 제시한 뒤 장문의 기사를 인용했는데, 인용문 전체가 <풍토록>에 수록된 내용이다. <풍토록> 기사를 전재한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를 이규경이 재인용한 셈이다. 해당 기사 끝에 보이는 “나는 이 품목이 최고의 품종이라고 생각한다.”<sup>60</sup>는 충암의 개인적 견해인데, 『탐라지』만 본다면 이원진의 판단인 것으로 곡해할 소지가 있다.

다음은 이규경이 당유자(唐柚子)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①

당유자 【열매 크기가 모과와 비슷하여 한 되 남짓을 담을 수 있다. 맛이 또 시큼하여 유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큰 열매가 매달린 채 드리워져 누렇게 익으니 진귀하게 여길 만하다.】

唐柚子 【實大如木瓜，可實一升餘，而味又酸，不及柚子。然巨實懸垂，黃爛可珍。】<sup>61</sup>

①-1

唐柚子 【實大如木瓜，可容一升餘，而味及柚子。然巨實懸垂，黃爛可珍。】

①-1은 충암의 <풍토록>이고 ①은 이규경이 <풍토록>을 인용한 글이다. 우선 ①-1의 “미급유자(味及柚子)”는 뒤 문장과 호응이 되지 않거니와, “거실현승(巨實懸乘)”의 ‘승(乘)’ 자도 오자가 분명하다. 이에 이규경은 전후 문맥

59 <剛卯斲毖弄辨證說>, <志地辨證說>에서는 참고할 만한 저술로서 <풍토록>을 언급했다.

60 『耽羅誌』 ‘土山’條, “吾則謂此品乃第一品也.”

61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草木類, 果種, <耽羅異果辨證說>.

을 고려하여 “미급유자”를 “미불급유자(味不及柚子)”로 수정했고, “거실현승”도 “거실현수(巨實懸垂)”로 고쳤다. 이에 당유자의 맛과 열매가 달린 모양이 선명하게 묘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용(容)’이 ‘실(實)’로, ‘난(爛)’이 ‘난(瀾)’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이것은 『오주연문장전산고』 간행 시 발생한 오류로 여겨진다. 텍스트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규경이 연복자(燕覆子)의 특징 및 생산지를 서술하는 부분이다. 선명한 논지 전개를 위해 주석은 생략하겠다.

①

연복자 【〈풍토록〉. ‘열매 크기는 모과와 비슷하고 껍질은 검붉다. 쪼개면 열매가 林下夫人과 비슷하나 조금 더 크다. 海南 등의 해변에 있다고 들었다.’ 지금 살펴보니 해남 등지에 과연 있었다. 의술을 아는 자에게 물어보니 그 덩굴을 캐고 으름을 베어 사용하면 효과가 곱절이나 낫다고 한다.】

燕覆子 【〈風土錄〉. ‘實大如木瓜, 皮丹黑, 剖之, 子如林下夫人之種而差大. 聞海南等邊海處有之.’ 今按海南等地果有之. 問於解醫者, 則採其藤伐木通用之, 功效倍勝云.】

①-1

또 산과실 末應【명】이 있는데 열매 크기는 모과와 비슷하고 껍질은 검붉다. 쪼개면 열매가 林下夫人과 비슷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열매가 조금 더 크고 맛이 조금 더 진하다. 대개 林下夫人의 품종으로서 큰 것이다. 海南 등의 해변에 간혹 있다고 들었으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又有山果末應【명】, 實大如木瓜, 皮丹黑, 剖之, 子如林下夫人而異, 子差大, 味差濃. 蓋林下夫人之種而大者耳. 聞海南等邊海處或有之, 未知信否.

①-1은 〈풍토록〉이고 ①은 이규경의 인용문이다. 이규경은 ‘말응(末應)’의



동의어인 ‘연복자(燕覆子)’를 표제어로 제시한 뒤, 문맥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토록> 기사를 축약했다. 이채로운 점은 충암이 판단을 유보한 부분, 즉 말음이 해남(海南) 등지에도 있다는 전언(傳言)을 이규경이 따로 실증했을 뿐만 아니라, 약효를 배가시키는 방법까지 덧붙였다는 사실이다. <풍토록>을 활용하되 불확실한 부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정보까지 추가한 것이다. 실학자로서 이규경의 면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풍토록>은 한 통의 답장에 쓴 개인 저술에 불과하지만 그 문헌학적 영향력은 이처럼 상당했다. 훗날 제주에서 기록되거나 제주를 소재로 찬술된 각종 시문에서 <풍토록>을 자주 인용하고 문학 소재로 활용했으며, 충암이 서술한 제주 풍토의 특징 및 개인적 견해는 후대 잡록류(雜錄類)나 읍지류(邑誌類)에서 공론처럼 정리되고 수용되었다.<sup>62</sup> 이러한 점을 통해 <풍토록>의 문학사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 IV. <제주풍토록>의 텍스트 비평

제주와 관련된 문헌의 찬술과 시문의 창작에 드리운 <풍토록>의 영향력은 책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전 텍스트에 내재된 문제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초간본(1552년 간행)과 중간본(1636년 간행)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2 李廷馨이 1599년 찬술한 「黃兎記事」(『知退堂集』 권12)와 權輿이 찬술한 『海東雜錄』에서도 <풍토록> 기사를 다수 축약하여 인용했다. 『耽羅誌』와 『輿地圖書』 등의 邑誌類에서도 <풍토록>을 적극 활용했는데, 특히 ‘風俗’條와 ‘土產’條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차례	초간본	중간본	올바른 간본
①	掘地爲坎	掘地爲坎	중간본
②	自能通知	自能通之	중간본
③	挑剔魚服	挑剔魚腹	중간본
④	勢不能可	勢不能耳	중간본
⑤	何足觀焉	何足與焉	
⑥	多賦氣	多賦泉	초간본
⑦	獐猪鹿	獐鹿猪	
⑧	鸛鵲等	無鸛鵲等	중간본
⑨	海衣甘	海衣甘答黃角	중간본
⑩	可耕以取	可耕以取汲	초간본
⑪	香薑	香薑	초간본
⑫	圓有而全惡	圓有而全惡	중간본
⑬	經冬則二三月	經冬到二三月	중간본
⑭	酸稱適中	酸甜適中	중간본
⑮	味在絕	味佳絕	중간본
⑯	屋圍以石墻	屋圍而石墻	초간본
⑰	亂風鬻雪	盲風鬻雪	

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간본 간행 시, 초간본 <풍토록>의 오류나 어색한 표현을 상당부분 수정했다.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다”[①]의 술어는 ‘굴(掘)’, 혹은 ‘굴(掘)’이 맞고, “(오래 살면서 제주 방언을) 저절로 이해하다”[②]의 ‘통지(通知)’는 ‘통지(通之)’의 오류이며, 땅이 비좁다는 것을 형용한 “물고기 배를 후벼내어 바르다”[③]의 ‘오복(魚服)은 의미가 통하지 않고, 죄인의 신분이므로 한라산에 오르는 것이 “형세상 불가능하다”[④]는 “세불능이(勢不能耳)”가 맞다. “황새와 까치 등이 없다”[⑧]에서 ‘무(無) 자가 빠지면 의미가 연결되지 않고, 바다나물을 나열하는 대목에서는 “해의(海衣)·감(甘)”[⑨]을 “해의(海衣)·감태(甘答)·황각(黃角)”으로 고쳤다.<sup>63</sup> (내륙의

63 중간본을 간행할 때, 수정을 담당한 자가 ‘答黃角’을 임의로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본 간행 시까지 <풍토록> 원본이 현전했는지는 미상이다. ‘答黃角’의 ‘答’

과실이 제주에) “간간이 있어도 완전히 형편없다”[⑫]의 ‘문(聞)’은 초간본의 오류이고, “겨울을 지나 2, 3월에 이르면”[⑬]은 통사구조를 고려하여 ‘즉(則)’을 ‘도(到)’로 바꾼 것이다. (굴 맛이) “신맛과 단맛이 적당하다”[⑭]는 ‘첨(拵)’자가 합당하고, “맛이 매우 훌륭하다”[⑮]의 ‘사(仕)’자는 ‘가(佳)’의 명백한 오류다. 이상은 초간본의 오류를 중간본에서 바로잡은 경우다.

반면 (쌈과 연못에) “짠 기운이 많다”[⑥]의 경우는 ‘함기(鹹氣)’를 ‘함천(鹹泉)’으로 바꾸면 의미가 중복되므로 초간본의 ‘기(氣)’가 합당하다. 염전에서 소금 채취하는 것을 설명한 “(염전을) 경작하여 취할 수 있다”[⑩]는 소금이 고체이므로 ‘급(汲)’자가 빠져야 하며, 표고버섯의 이칭인 ‘향심(香蓴)’[⑪]을 ‘향점(香簞)’으로 고친 것은 중간본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는 초간본의 표현이 조금 더 온당한 경우다. 나머지 ⑤, ⑦, ⑯은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자의(字義)를 고려하여 글자를 재배열한 경우다.

다음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입력본 DB를 구축할 때 문집의 글자를 오독한 경우다.

차례	『충암집』	고전번역원 입력본 DB의 오류	비고
①	知印	持印	관직명
②	蚩臣	蚩臣	어리석은 백성
③	禿以天堂地獄	禿以天堂地獄	겁주다
④	狐兔	狐兔	토끼
⑤	牡蠣	牡蠣	굴조개
⑥	田人	田人	토착인

는 ‘곰’의 誤字다.

①은 관직명인 ‘지인(知印)’의 ‘지(知)’를 같은 음가의 다른 글자로 입력한 사례이고, ②부터 ⑥까지는 문장 속에서 해당 글자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양이 비슷한 글자로 오독한 경우다. 위 도표의 비고란에 적은 해당 글자의 의미를 감안할 때 입력본의 오류가 분명하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된 『충암집』 중간본<sup>64</sup>을 영인의 저본으로 삼아 입력본 DB를 구축했는데 획이 마모되거나 애매한 글자를 잘못 판독하거나 동일한 음가의 다른 한자로 입력한 것이다.<sup>65</sup> 충암의 제주 한시를 수록한 「해도록」에도 이러한 사례가 여럿 보인다.<sup>66</sup> 충암 저술의 텍스트상의 문제점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전하는 <풍토록>은 텍스트 자체가 안정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나 글자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애초에 행초(行草)로 작성되었던 편지가 일부 손상되었고 나중에 그것을 탈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그 가운데 오자에 한정하여 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4 청구기호는 一叢古7320이다.

65 金安老의 『希樂堂稿』도 유사한 사례다. 김안로가 丁酉三旼의 일원이었던 탓에 『희락당고』는 간행되지 못한 채 후손가에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고전번역원에서 영인본을 간행했다. 이 책의 원본 텍스트에도 결락된 글자와 誤字가 많이 나타난다. 애초에 저본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저본이 일부 行草로 적힌 바, 전사를 담당했던 자가 글자를 잘못 판독하거나 판독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아울러 고전번역원의 입력본에도 원본 텍스트를 잘못 판독한 글자가 상당량에 이른다. 그 실제 사례는 김덕수, 「『희락당고』 소재 한시 주석 연구」, 『장서각』 33(2015) 참조.

66 “그대와 비록 다른 곳에 있지만(與君雖兩地)”의 ‘兩’은 ‘兩’의 誤字고, “끓주린 모기가 밤낮으로 극성이네.(飢蚊甚巨晡)”의 ‘日’은 ‘日’의 오자이며, “거룻배 당기며 들어가니 움켜쥐는 신령의 형세이거늘(蘭橈挈入攫神形)”의 ‘攫’은 ‘攬’의 오자다. 앞의 두 경우는 입력본 DB의 오류이고, 세 번째 경우는 원본 텍스트의 오류다. <聞方生澹牛島, 歌以寄興>이라는 詩題의 경우, ‘淡’은 ‘이야기하다’라는 뜻의 ‘談’의 오자로서 중간본 텍스트의 오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암의 작품을 인용하는 논문이나 충암의 저술을 저본으로 삼은 번역서에서 DB 입력본을 여과 없이 활용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차례	<제주풍토록>의 오자	새로 비정한 글자	비고
①	蠢 <small>虫</small> 留	蠢 <small>虫</small> 漏	
②	蛇頭駢出城 <small>縫數四</small> 云者	蛇頭駢出城 <small>縫數四</small> 云者	
③	玉葉金實, 青黃 <small>橋爛</small>	玉葉金實, 青黃 <small>爛爛</small>	혹은 青黃 <small>爛爛</small>
④	<small>材</small> 屋之制	<small>作</small> 屋之制	혹은 <small>凡</small> 屋之制
⑤	味 <small>及</small> 柚子	味 <small>不</small> 及柚子	
⑥	巨實懸 <small>乘</small>	巨實懸 <small>垂</small>	
⑦	礙 <small>睡</small> 而已	礙 <small>眼</small> 而已	
⑧	牆去簷僅半 <small>尺</small>	牆去簷僅半 <small>步</small>	혹은 牆去簷僅半 <small>尺</small>
⑨	汲 <small>先</small> 既多	汲 <small>夫</small> 既多	
⑩	<small>鬪</small> 品官人	<small>矣</small> 品官人	
⑪	甘 <small>筍</small>	甘 <small>筍</small>	
⑫	行 <small>實</small>	竹 <small>實</small>	

①은 지네, 지렁이처럼 꿈틀대는 벌레를 가리키는 것이므로<sup>67</sup> 하루살이 ‘류(蠕)’가 아닌, 꿈틀거릴 ‘연(蠕)’이 옳다.<sup>68</sup> ②는 충암이 예전에 들었던, 제주 뱀에 관한 괴이한 소문을 적은 것인데 <풍토록> 원문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sup>69</sup>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봉(縫)’은 ‘요(繞)’로, ‘사(四)’는 ‘잡(匝)’으로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굴나무의 옥빛 잎과 금빛 열매가 청색과 황색으로 화사하게 펼쳐진 모습을 형용한 ③의 경우는 ‘청황굴란(靑黃橋爛)’의 ‘굴란(橋爛)’을 ‘만난(爛爛)’, 혹은 ‘난만(爛爛)’ 정도의 술어로 바꾸어야 의미가

67 “又地多蟲類，蠅蚘尤甚，與凡蜈蚣蟻蚓等諸雜蠢蠕之物，皆經冬不死，甚爲難堪。想北邊寒冽，必少此害也。”

68 蠢蠕은 하찮은 미물을 비유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충암의 <獄中疏>(『冲庵集』 권5)에도 “天恩至重，聖明之下，雖微蟲蠢蠕，咸欲使之得所，臣雖負罪，亦曾側士大夫之列，豈宜使冤枉之狀，長掩莫白!”이 보인다.

69 전후 문장을 번역하면 “이 지역에 뱀이 매우 많은데, 비가 내리려 할 때, 뱀 대가리가 나란히 성 밖으로 나와서 몇 겹으로 둘러싼다는 얘기를 나는 들은 적이 있다. 여기에 와서 증험해 보니 터무니없는 말이였다(吾舊聞此地蛇甚繁，天欲雨，蛇頭駢出城縫數四云者。到此驗之，虛語耳).”이다.

자연스럽고 중복되지 않는다. ④는 제주 가옥의 특징을 서술하는 문장의 첫머리이자 해당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며 뒷부분에 자재에 관한 설명이 없으므로<sup>70</sup> ‘작옥지제(作屋之制)’, 혹은 ‘범옥지제(凡屋之制)’가 적합하다.<sup>71</sup> ⑤와 ⑥은 이규경이 문맥을 감안하여 이미 교열했듯이 ‘불급(不及)’과 ‘수(垂)’가 올바른 표현이다.

⑦에서 ⑫까지는 행초로 적힌 원문을 오독한 경우다. 우뚝 솟은 한라산이 ‘시아를 가린다’, 혹은 ‘눈에 거슬린다’는 뜻의 ⑦은 ‘애안(礙眼)’으로 써야 하고, 처마와 담장 사이의 밀착된 거리를 묘사한 ⑧은 길이의 단위로 사용되는 ‘보(步)’, 혹은 ‘척(尺)’으로 써야 한다.<sup>72</sup> ⑨는 샘물의 하류가 더러운 까닭을 설명한 것으로 ‘先’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⑩은 종결어조사 ‘의(矣)’를 ‘호(号)號로 잘못 탈초하고 나서, 엉뚱하게 뒤 문장 첫머리에 붙인 사례다.<sup>73</sup> ⑪과 ⑫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감태(甘苔)’, ‘죽실(竹實)’이란 물명을 ‘감태(甘苔)’, ‘행실(行實)’로 오독한 것이다.<sup>74</sup>

70 해당 문장은 “가옥의 구조가 깊고 넓으며 각 채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材屋之制, 深廣幽深, 各梗【채】不相連屬).”이다.

71 서체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作’일 가능성이 더 높다.

72 층암과 함께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함경도 穩城府에 위리안치된 奇遵의 경우는 담장과 처마와의 거리를 설명하면서 ‘尺’과 ‘咫’라는 양사를 사용했다. 『德陽遺稿』, 〈圍籬記〉. “正厥方位, 植以高株, 環以厚籬, 築以雜棘. 外內牙角相叉, 固不動變, 密無容針. 周可五十尺, 高無慮四五丈, 距屋之籬, 纔數尺或咫, 而出其上, 三之二有強.”

73 필자의 견해로는 “凡屋之制, 深廣幽深, 各梗채不相連屬矣. 品官人外無溫埃.”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74 이밖에 제주에서 기르는 소를 설명하며 “牛畜則多有, 價不過三四丁”이라 했는데 ‘丁’이라는 量詞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隔間에서도 오류가 보인다. 제주인의 포악한 기질을 기술하며 “以強制弱, 以暴劫仁, 不下(격간)君示.”라 했는데, 여기서 적은 ‘君示’는 임금이 아닌, 상대방이 편지에서 말한 내용을 가리킨다. 한문 간찰에서 상용되는 표현이므로 격간이 불필요한 부분이다. “대장부가 태어나서, 큰 바다를 가로질러, 발로 이처럼 다른 땅을 밟고, 이처럼 다른 풍속을 보는 것도 세상의 기이하고 씩씩한 일이다(男兒落地, 橫截巨溟, 足踏此異區, 見此異俗, 亦世間奇壯事).”의 경우에도 許筠과 李廷馨은 “足踏此異區”와 “見此異俗”의 對偶

저자 사후에 타인이 유고를 수습하여 교정과 편차를 담당하거나, 문집 간행 시 사용되는 정고본(定稿本)이 저자 자편 원고가 아닐 때가 많다. 더욱이 수습한 원고가 행초서로 쓰인 경우에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지면이 손상되거나 글자가 결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훗날 탈초하여 정고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밖에 판각 과정에서 각수(刻手)가 저지른 오류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근자에 각종 고문헌의 정서본(正書本)을 만드는 단계에서 기존 오류를 답습하거나 판독상의 새로운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고문헌에 접근할 때 텍스트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감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풍토록>도 예외는 아니다.

## V. 맺음말

---

<제주풍토록>은 제주 풍토를 기록한 것으로 충암이 외질에게 답장 형식으로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다. '제주풍토록'이란 제목은 『충암집』 초간본을 간행하기 이전에 본 자료를 수습하거나 교정한 인물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편지 수신자가 외질이라는 기록은 허봉의 『해동야언(海東野言)』에 처음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명확한 정보가 추후에 계속 인용되었다. 충암이 <풍토록>에서 '군(君)'이라고 지칭한 자가 충암에게 띄웠던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을 일부 파악할 수 있거니와 일단은 편지의 수신인이 외질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건대 <풍토록>은 충암이 사사되기 직전인 1521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찬술되었다. 충암은

---

를 고려하여 '見' 앞에 '目'을 붙였다.

〈풍토록〉을 찬술하며 『본초강목』과 『동국여지승람』 등을 활용했다. 특히 『동국여지승람』을 참조하여 특정 기사의 기본 골격을 만들되 일부 항목을 추가한 뒤, 전문한 사항이나 체험한 내용을 본문이나 주석에 첨가했다. 제주 풍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인물은 제주 상장(上將) 고근손(高根孫), 문세걸(文世傑), 방순현(方舜賢), 여러 익명의 제주 백성들이다. 문세걸과 방순현은 충암과 가장 친밀하게 교류했던 인물이다.

동계(桐溪) 정온(鄭蘊)의 저술에서 〈풍토록〉을 인용한 흔적과 〈풍토록〉이 폭넓게 읽힌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답장 형태로 제주 풍토를 기술하던 방식은 후대의 문인들이 모의하기도 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을 위시하여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성구(金聲久), 제주어사(濟州御史) 이해조(李海朝), 제주통판(濟州通判) 남구명(南九明) 등의 시문과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誌)』,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서도 약간의 가감을 거쳐 〈풍토록〉을 인용하고 있다. 김성구의 〈남천록(南遷錄)〉과 이해조의 한시 주석, 이규경의 기사는 〈풍토록〉 텍스트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이규경은 〈풍토록〉을 활용하되 불확실한 부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정보까지 추가하면서 실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풍토록〉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제주에서 기록되거나 제주를 소재로 찬술된 각종 시문에서 〈풍토록〉을 자주 인용하거나 문학 소재로 활용했고, 충암이 개진한 제주 풍토의 특징 및 개인적 견해는 후대 잡록류(雜錄類)나 읍지류(邑誌類)에서 공론처럼 정리되곤 했다. 현전하는 〈풍토록〉 텍스트에는 적잖은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 초간본과 중간본을 비교해 보면 중간본 간행 시, 초간본의 오류나 어색한 표현을 상당부분 수정하기도 했으나, 초간본의 합당한 표현이 엉뚱하게 판단된 사례도 보인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입력본 DB를 제작할 때 문집의 글자를 오독한 경우도 눈에 띈다. 이밖에도 불완전한 표현과 글자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데 애초에 행초로 적힌 편지가 일부 손상되었고 훗날 그것을 탈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여겨진다. 따라서 <풍토록>을 활용할 때 텍스트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감에 만전을 기해야 하거니와, 심화된 연구를 위해 <풍토록> 정보화 작업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K C I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中國基本古籍庫.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慧普覺禪師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貴3747-253).

『大慧普覺禪師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1840-3).

魚叔權, 『稗官雜記』.

權鼈, 『海東雜錄』.

許筠, 『海東野言』.

李瀾, 『星湖僿說』.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증보탐라지편찬위원회 편,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2004.

奇遵, 『德陽遺稿』.

金聲久, 『八吾軒集』.

金淨, 『冲庵集』(초간본, 장서각 소장, D3B1588).

\_\_\_\_\_, 『冲庵集』(중간본, 규장각 소장, 一叢古7320).

南九明, 『寓庵集』.

申命仁, 『龜峰先生集』.

李廷馨, 『知退堂集』.

李海朝, 『鳴巖集』.

鄭蘊, 『桐溪集』.

趙遠期, 『九峯集』.

許穆, 『記言』.

許筠, 『荷谷集』.

### 2. 논문

김덕수, 「『희락당고』 소재 한시 주석 연구」. 『장서각』 33, 2015, 151-178쪽.

김덕수, 「제주 유배객 충암의 교유와 감춰진 이름들」. 『인문논총』 제76권 제1호, 2019, 145-178쪽.

김상조,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 비교 연구」.

- 『대동한문학회지』 13권, 2000, 265-284쪽.
- 김유리,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40호, 2012, 230-244쪽.
- 양순필, 「충암의 <제주풍토록> 소고」. 『어문논집』 22호, 1981, 131-132쪽.
- 이종묵, 「한국의 유배체험과 글쓰기 문화: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호, 2005, 33-62쪽.
- 정시열, 「조선조 제주도 유배 문학의 위상」. 『한국고전연구』 24권, 2011, 263-270쪽.



## 국문초록

충암이 제주에서 제작한 한시와 <제주풍토록>은 익명성과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기묘사림에 대한 훈구파의 감시와 압박 때문에 대상 인물의 흔적을 애초에 지워 버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풍토록> 원본이 행초로 적혔거니와 결락된 부분이 많은 탓에 탈초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오류가 발생했다. <풍토록>은 제주 풍토를 기록한 것으로 충암이 외질에게 답장 형식으로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으나 일단은 상대방이 외질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충암은 사사되기 직전인 1521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풍토록>을 저술했다. <풍토록>을 찬술하며 『본초강목』과 『동국여지승람』 등을 활용했다. 충암에게 제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인물은 고근손, 문세걸, 방순현, 여러 익명의 제주 백성들이다. 정은, 허목, 김성구, 이해조, 남구명 등의 저술과 『탐라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서 <풍토록>을 적극 인용하고 있다. <풍토록>은 후대 문인들에게 폭넓게 읽혔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답장의 형태로 제주 풍토를 기술하던 방식이 후대 문인들에게 모의되기도 했다. 김성구의 <남천록>과 이해조의 한시 주석, 이규경의 기사는 <풍토록> 텍스트의 모호한 표현과 오류를 수정하는 데 유익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이규경은 <풍토록>을 활용하되 불확실한 부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정보까지 추가하면서 실학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훗날 제주에서 기록되거나 제주를 소재로 찬술된 각종 시문에서 <풍토록>을 자주 인용했고 문학 소재로서 활용했으며 충암이 기술한 제주 풍토의 특징 및 개인적 견해는 후대 잡록류나 읍지류에서 공론처럼 정리되곤 했다. 현전하는 <풍토록> 텍스트에는 여러 층위의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 중간본 간행 시, 초간본의 오류나 어색한 표현을 상당부분 수정하기도 했으나, 초간본의 합당한 표현이 엉뚱하게 판각된 사례도 보인다. 그리고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입력본 DB를 제작할 때 문집의 글자를 오독한 경우도 눈에 띈다. 이밖에도 불완전한 표현과 글자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애초에

행초로 적힌 편지가 일부 손상되었고 훗날 그것을 탈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여겨진다. 따라서 <풍토록>을 읽을 때 텍스트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감에 만전을 기해야 하거니와,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풍토록> 정본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가 집적되어도 도출된 결과가 사상누각이 되기 십상이다.



투고일 2019. 3. 19.

심사일 2019. 4. 23.

게재 확정일 2019. 8. 13.

주제어(keyword) 충암(冲菴, Choongam), 김정(金淨, Kim Jeong), 충암집(冲庵集, Collection of Choongam's Writings),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Jeju Pungtorok*), 텍스트 비평(Textual Criticism), 교감(校勘, Comparative Analysis)

## Abstracts

### A Textual Criticism on *Jeju Pungtorok*

Kim, Deok-su

The *Jeju Pungtorok* describes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Jeju. It is possible that it is a replay from Choongam to his nephew,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it could be directed to someone else than the nephew for now. Choongam wrote the *Jeju Pungtorok*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1521 shortly before he was put to death by poison. He referred to *Boncho Gangmok* and *Dongguk Yeoji Seunnam* when writing the book. The people who provided Choongam with the information about Jeju are Geun-son Goh, Se-geol Moon, Soon-hyeon Bang, and the unnamed people of Jeju. The *Jeju Pungtorok* has been widely read by the later generation of literary people. It has been frequently quoted in the recordings made in Jeju or various poems and writings written on the theme of Jeju in later times and also has been used as the literary materi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features of Jeju and the personal opinions on them by Choongam used to have been accepted as the popular opinion in miscellaneous records and down chronicles written by later generations. The text of this book has errors in various layers. Many errors and awkward expressions of the first edition were corrected in later editions, but the reasonable expressions were printed awkwardly in later editions in some cases. Also, in some cases,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misread some letters in the anthologies when producing the fair copy. There are also many incomplete expressions and letters and they are the errors made in the course of transcribing the letters that were written in cursive style of writing and partly damaged. Therefore, the emphasis shall be given on cross referencing and correcting errors by keeping in mind the possibility of error when reading the *Jeju Pungtorok*.